



최현섭
강원대학교 총장,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국가 명운을 바꾸려면, 고등교육 일대 혁신에 전심전력하라

신임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없이 많겠지만, 그 중 고등교육의 혁신만큼 국가 경제와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선진제국들이 앞다투어 고등교육의 혁신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일대 혁신을 위해 신임 대통령과 정부가 특별히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를 밝혀 보고자 한다.

I. 머리말

그 뜨겁고 소란스러워 보이기가까지 했던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지금부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말 그대로 나라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나 나라의 든든한 경제발전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부디 선거 기간 동안에 약속하고 다짐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차근차근 실천에 옮겨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들도 이제는 지지 여부를 떠나 성공하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학교의 대통령처럼 착각하고 대하는 폐습은 이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바람과 기대를 전제로 신임 대통령과 정부가 특별히 역점을 두기를 바라는 바를 몇 가지 밝히고자 한다.

II.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역점 과제

첫째,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고등교육의 일대 혁신을 택하기 바란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혁신만큼 국가 경제와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대학총장이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제국들이 앞다투어 고등교육의 혁신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물론 대선과정에서 고등교육 관련 선거공약은 많이 제기되긴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고등교육혁신은 그 공약의 이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공약을 폐기하는 한이 있어도 고등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을 철저히 짜라는 것이다. 선거 공약은 표를 겨냥해야 하는 성격상 대체로 단기적이거나 이해 당사자의 구미에 맞추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혁신은 국가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으로 볼 때, 선거공약의 수준으로 접근할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

으로 고등교육혁신기구를 신설하여 직접 챙기고 점검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정부에서도 그동 안처럼 당장의 성과나 임시방편에만 매달린다면, 일류국가로 진입하기는커녕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며, 혹독한 비난 또한 면치 못할 것이다. 새 대통령과 정부는 부디 그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디 몇 천 불 시대의 안목과 아날로그식 사고방식을 과감히 떨쳐 내고 3만 불, 4만 불 시대를 대비하고 세계적인 안목과 수준의 고등교육혁신에 역점을 두길 바란다.

둘째, 그 고등교육의 일대 혁신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만은 반드시 견지하길 바란다. 고품질 인재 양성, 획기적인 재정 투자,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이 그것이다. 고품질 인재 양성은 고등교육혁신의 양보할 수 없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 세계의 그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능력이나 품성에서 앞서 있고, 세계 시장 어디에서도 호평받을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빼놓고 고등교육을 혁신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보면 고품질 인재 양성은,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이지만 양성된 인재에 대한 평가는 신통치 못하며, 나라 안에서는 일류대학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중위권을 맴도는 한국 대학교육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절체절명의 대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고품질의 인재 양성은 목적이나 구호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획기적인 재정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것도 낭비처럼 보일만큼의 획기적인 투자, 그리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동력이 쌓이고 성과에 가속도가 붙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선거철이나 연설할 때에는 왕왕 고등교육이 중요하다 하다가도 예산을 세울 때에나 심의할 때에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삭감의 일변 순위로 삼곤 했다. 지난 국회에서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라지만 대학교육 환경은 1천 불 시대를 맴돌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고등교육 예산에는 인색하였다. 부디 새 대통령과 정부는 그런 이중 습성을 바꾸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교육 재정은 낭비가 아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는 산업과 기술,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

키는 원동력이다. 일본의 경우 세계적인 거점대학 육성을 위해 2002년 182억 엔에서 시작하여 2005년도에는 382억 엔으로 늘렸고, 프랑스의 경우 고등교육에 2012년까지 50억 유로를 추가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부디 새 대통령과 정부는 돈 안들이고 고등교육을 혁신해 보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처음부터 버리기를 바란다.

셋째, 고등교육혁신에서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특히 객관적 지표로나 내부의 동력으로 보아 조금만 지원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인재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저비용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아 세계무대를 누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21세기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세방화(glocalization)를 실현하는 전략이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전 국민의 삶의 질의 동질화를 달성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나아가 그것은 단극 서열화 구조로 되어 있는 한국의 고등교육체제 때문에 나타나는 각종 교육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는 주요한 방편이기도 하다.

지식정보화라고 하는 시대적 특성 때문에 21세기에는 인재양성체제, 산업과 경제, 사회와 문화의 다극화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지식과 자본이 국경을 내 집 드나들듯 하는 것처럼 인재도 이미 국경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경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지방대학의 육성만이 세계적인 지배권 확보의 지름길이다. 새 대통령과 정부는 부디 세계적인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에 전력하길 바란다.

Ⅲ. 맺는말

마지막으로 대통령 당선에 앞장서고 앞으로 국정 수행을 도와줄 인사와 세력들께 한마디 하고자 한다. 부디 집권의 기쁨과 벽찬 감격에 취하지 말고 역사적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국가에 헌신·봉사하는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 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단기적 성과나 인기에 집착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치에 있어 여론과 인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집착하다 보면 머지않아 여론도 인기도 등을 돌리게 된다. 결국에는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만 안기는 꼴이 되기 쉽다. 교육정책 특히 고등교육 정책의 경우는 여론과 인기는 멀리할수록 백년지대계에 가까워진다. 교육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철학과 이론이 결부되어 있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눈에 안보이거나 교묘히 감추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속기 쉽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사와 세력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잘못 말려들다가는 특정한 이해관계, 철학, 이론만을 도와주는 꼴이 될 뿐, 아이가 행복해지고 인재의 품질이 좋아져야 할 교육 본질은 온데간데없을 수 있다. 부디 냉철한 판단과 무한 책임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교육정책에 접근하길 간절히 바란다.

필·자·약·력

최현섭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교육혁신위원회,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한국 사회교육학회 회장, 학교정책협의회, 학교교육력제고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였다. 현재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정의교육시민연합 대표로 활동 중이며, 2004년부터 강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사회문화』(공저), 『사회교육연구 : 이론과 실제』(공저), 『현대 민주시민교육론』(공저), 『미래학 입문』(공저), 『한국시민사회의 전개와 공동체 시민의식』(공저), 『한국교육문제론』(공저), 『강원교육과 인재 양성』(공저)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교과교육발전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 모형 연구” 등 다수가 있다.